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등재 후 쟁점과 전망

: 유산 보존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분석을 중심으로*

황선익 _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세계유산위원회의 1차 권고와 2017년 보존보고서
- III. 2019년 보존보고서의 한계와 세계유산위원회의 2차 권고
- IV. ‘메이지유산’ 현장의 현실
- V. 나오며 -전망 및 제언-

국문초록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은 아시아 지역의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태평양전쟁기 노동자들의 강제 징용 문제 등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켰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유산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과 이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내각관방 명의로 2017년, 2019년 SOC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권고 이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의 등재 후 구체적 쟁점을 파악하고자, 유산 보존 보고서(SOC)의 주요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2019년 SOC는 각 유산의 방목자 관리 전략에 비중을 뒀을 뿐, 전체 역사의 해석 부분은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 또한 주변국과의 대화를 명시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일본 내 전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9S1A5A2A03053392)

문가위원회와 지역 간 협의회로 대체했다.

2021년 6월 유네스코와 ICOMOS 공동조사단은 “강제노역한 이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해석 조치가 불충분”하며,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당사국이 등재 당시 한 약속이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들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세계유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2년 12월 다시 유산보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다원성을 추구하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해 속에서 한일 간의 소통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주제어 :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보존보고서, 하시마, 하기, 나가사키

1. 들어가며

2015년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유산(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이하 ‘메이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2000년대 중반 ‘규슈·야마구치 일대 산업유산’으로 시작된 ‘메이지유산’의 등재는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으로 명칭이 수정된 후(2014년),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 유산-규슈·야마구치 관련 지역’으로 다시 변경된 후, 본격 등재가 추진되었다. 그 사이 ‘메이지유산’은 (1) 규슈·야마구치라는 지역적 범주를 넘어섰으며, (2) 단순한 산업유산이 아닌 ‘산업혁명’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3) 아울러 가동 중인 산업시설까지 유산에 포함시키며 문화재 규정까지 수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는 “비서구권에서 일어난 산업화의 첫 번째 성공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메이지유산’의 OUV(Outstanding and Universal Value)를 규정했다.¹⁾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2015 Nomination file 1484.

일본의 산업혁명을 특징화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맞춰진 것은 철강, 조선, 석탄산업이었다. 이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해저탄광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미즈비시 나가사키조선소(三菱長崎造船所), 야하타제철소(八幡製鐵所) 등이 내세워졌다. 문제는 상당수 유산이 제국주의 시기 강제동원의 현장이라는 점인데, 일본 측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OUV의 시기를 191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메이지유산은 등재 전부터 “탄생기에 해당하는 메이지 시대에만 국한해서 유산을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과,²⁾ 유산이 갖고 있는 어두운 역사를 망각시키고 있다는 비판 등을 받았다.³⁾ ‘군함도’로 상징화된 메이지유산 등의 문제는 동북아 역사 갈등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평도 있었다.⁴⁾ 한편으로는 일본 내 정치 구도와 맞물린 ‘기억의 정치’의 소산이라는 평가도 있었다.⁵⁾

일본 측은 2015년 7월 사토 쿠니 일본 대사를 통해 “메이지 산업유산의 일부 유적지들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한 사실을 해설할 것이며, 해설전략 안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나 추모시설 설립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는 보존 및 해석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39 com 8B. 14)

본고에서는 ‘메이지유산’에서 규정된 OUV와 실제 현장에서의 굴절, 그로 인해 이어지는 해석 논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재 과정 보다는 등재 이

2) 강동진,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 『국토계획』 50권 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5, p.90.

3) 한정선, 「군함도, 산업유산과 지역관광 사이에서」,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p.286.

4) 황선익,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일본공간』 19, 2016.

5) 이영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일고찰」, 『아세아연구』 통권 180호, 2020.

후 갈등과 쟁점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SOC보고서와 현장 이행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필자는 2018년과 2020년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보존보고서 분석연구’(문화재청 주관)를 수행하며, SOC보고서를 분석한 바 있다. 본고 중 2, 3장은 해당 분석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일본 메이지유산이 논쟁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에 문제제기와 보완 요구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II. 세계유산위원회의 1차 권고와 2017년 보존보고서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는 하시마탄광을 비롯한 유산의 보존 프로그램, 방문객 관리 전략,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및 관련 인력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해설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보고서로 제출토록 했다.

2017년 11월 일본 정부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보존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이하 SOC)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해설전략과 유산 보존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해설전략은 OUV와 전체역사 해설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전략상 최상위 범주에 OUV를, 중간 범주에 중공업의 역사를, 최하위 범주에 각 유적지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해설을 설정하였다.

전체역사 해설전략으로 (1) 1850년대 이전과 1910년 이후 모두를 포괄한

다”고 밝혔으며,⁶⁾ (2) 전체역사를 OUV 기간인 1850년대에서 1910년 이외의 시기까지 포괄한다는 원칙하에 제2차대전 시기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해설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3) 해설계획에는 2019년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산업유산 전반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파하겠다는 향후 일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전체역사 해설과 관련하여 도출된 계획이었다.⁷⁾

한편 일본 정부는 유산 해설에 대한 가버넌스 프레임워크(governance framework) 운용을 제시하였다. 지구별보존협의회(가동자산과 비가동자산 각각)와, 국립보존관리위원회 등의 정례회의, 유적지별 워킹그룹 간의 소통이 강조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유산전문가위원회가 유산의 보존·관리·해설 조치들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모으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장 주목을 끈 한국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해설은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SOC g항 제3목에서 식민지 한국인 강제노동 문제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합법적인 징용으로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온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첫째 태평양전쟁기 강제노동 문제를 법률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전제’했다는 점, 둘째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역시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Koreans’라는 정확한 단어 사용의 기피로 여겨짐), 셋째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했다’는 표현은 동의하의 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태평양전쟁기 메이지 산업유산 유적지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중국인 노동자와 연합군 포로의 존재를 누락하여, 이를 한일 간의 관계로 축소하려고 한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제4목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징용정책을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

6) 2017 SOC, p.376.

7) 2017 SOC, p.52.

한 연구를 ‘착수(undertake)’한다고 서술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으며, 한편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이설(異說)을 주장하려는 우려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설전략은 2015년 일본 대사의 발언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2017년 11월 27일 한국 외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에서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이 일본이 등재 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도쿄도(東京都) 내에 종합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전시 중 징용정책을 포함하여 유산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고 12월 1일 발표하였으나,⁸⁾ 이후 12월 24일 일본 재단법인 ‘산업유산 국민회의’는 한국인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실을 부정하는 옛 주민의 증언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⁹⁾

2017년 SOC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유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같은 달 5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¹⁰⁾

결국 유네스코는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39차 위원회 결정문(「39 COM 8B. 14」)을 환기하며 이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보고(2019년

8) 『朝日新聞』, 2017년 12월 2일

9)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부정’ 옛 주민 주장 영상 공개」, 『연합뉴스』, 2018년 1월 9일자

10) 『연합뉴스』, 2017년 12월 5일자

12월 1일)를 요청하는 결정문(「42 COM 7B, 10」)을 채택했다.¹¹⁾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39 COM 8B, 14) 취지를 환기하여 ①하시마섬 보존전략, ②방문자 관리전략, ③산업유산 정보센터에서 이뤄지는 해석 내용, ④OUV시기 및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 과정에서 국제적 모범사례 고려, ⑤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3일 유네스코에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 대한 등록 후의 보존 상황에 대한 2차 SOC보고서를 제출하였다.¹²⁾

III. 2019년 보존보고서의 한계와 세계유산위원회의 2차 권고

1. 보고서의 주요 구성

2017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Decision 42 COM 7B 10’에서는 “11. 당사국이 Decision 39 COM 8B, 14를 완전히 이행하고 2019년 12월 1일 까지 유산 보존현황과 위의 이행”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2019년 SOC보고서는 일본 내각관방과 각 지역 정부, 개별 유산 요소의

-
- 11) 2019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SOC보고서는 2020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다. 세계유산위원회 협약에는 매년 총회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총회가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 12) 한국 외교부는 즉각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내었다. 덧붙여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dialogue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소유자, 기타 당사자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내각관방에 의해 최종 정리되었다. 보고서는 「42 COM 7B. 10」의 요지와 배경, 주요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유산별 구체적 조사와 보전 처리 현황, 향후 목표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42 COM 7B. 10」의 핵심 내용인 4·5항, 6항, 7·8·9항, 10항, 11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Decision 42 COM 7B 10의 주요 내용〉

결정문 항목	주요 내용	구분
4, 5항	<p>4. 하시마섬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공된 세부 사항에 대해 당사국을 <u>지하하고</u>, 하시마섬에서 진행될 향후 30년간의 보존사업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달성한 상당한 진전과 그러한 장기계획에 조달할 재원의 확보 노력에 <u>주목하며</u>, 그러한 사업이 섬의 용벽을 안정화하고 부패가 진행 중인 유물과 전함의 외형을 보존하는 한편 그 첫 단계로 용벽과 보존 기법의 연구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에 <u>또한 주목하며</u>,</p> <p>5. 자문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대로 아래의 정보를 세계유산센터에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 <u>요청하는 바</u>.</p>	<p>하시마탄광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의 실행계획에 대해서 제시했다.</p>

- 13) 세계유산위원회는 Decision 39 COM 8B.14 4.g)에 언급되었으며, 회의 요약기록(WHC-15/39.COM/INF.19)에 포함된 각 유적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과 관련하여 일본의 성명에 주목한다.
- 14) 11항은 기한 내 보고서 제출과 형식상 절차 이행에 관한 것으로 특이 내용은 없다. 다만 2020년 회계연도가 종료 시점이 3월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회계기간에 맞춰 이행을 완료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2020년 3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했다.

결정문 항목	주요 내용	구분
6항	6. 방문자 수 모니터링은 모든 유산 요소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용 능력을 비롯한 방문객 관리 전략이 아래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마련될 예정이라는데 주목하며, 전략이 완성되면 자문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제출해 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며,	방문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양적, 질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방문객 관리 전략이 마련되었다.
7, 8, 9항	7. 나아가 모든 유산 요소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 소통방식이 개발되었지만, 개소 예정인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포함해 추가적인 개선책이 계획되어 있음에 또한 주목하며. 8.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해석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 또한 요청하며, 9. 당사국이 OUV 해당 시기와 그 밖의 시기 모두에 대해 유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지속할 때 해석 전략에 있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해석전략에 근거한 유산 해석이 적절히 이루어져 왔다.
10항	10. 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하며,	관계자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관계자 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광범위한 대화 노력에 힘써 왔다.
11항	11. 당사국이 Decision 39 com 8B 14 ¹⁰⁾ 를 완전히 이행하고 2019년 12월 1일까지 유산 보존현황과 위의 이행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2020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가로 요청한다. ¹⁵⁾	결정문 39 COM 8B.14의 완전한 이행과 보존현황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Decision 39 COM 8B.14에 제시된 권고 f)에서 언급된 인재양성 사업 및 권고 h)의 개발 사업과 함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SOC보고서는 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400쪽이 넘지만, 이 중 본문이 57쪽, 부록 내용이 349쪽에 달한다.(영문판 기준) 하시마탄광

에 대한 보존대책과 방문객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체 분량의 70%를 차지하는데 비해 전체 역사의 해석에 대한 부분(4·5·6항)은 20쪽 분량으로 5%에도 미치지 못 한다. 10항 관련 당사자 간의 지속적 대화도 모두 일본 내 전문가회의 조직과 관련 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보고서의 항목별 주요 내용

(1) 4·5항: 하시마탄광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¹⁵⁾

메이지유산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하시마탄광이었다. 하시마는 군함을 닮은 외형과 최근 관심을 끄는 ‘폐허유산’을 대표하며 주목을 끌었다. 문제는 하시마탄광이 제국주의시기 강제동원의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하시마를 포함한 메이지 유산이 등재되기 훨씬 전부터 ‘군함도’에 대한 강제동원 증언과 진상조사는 많이 이뤄졌다.¹⁶⁾ 즉 한국인 노동자 수, 노동환경, 작업, 원폭피해 후 복구 작업 투입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당시 혹독한 작업 상황과 탄광사고로 인한 피해,¹⁷⁾ 하시마 및 다카시마(高島)탄광에서의 탈출문제¹⁸⁾ 등 구체적인 동원 피해 실태가 규명되었다.

하시마탄광의 문제는 이러한 강제동원의 역사가 지워진 채 메이지 초기의 석탄산업을 상징하는데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

15) 2019 SOC, pp.4~20.

1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2012, p.298 ; 林えいだい, 『死者への手紙』, 明石書店, 1992 등

17)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 조사』, 2012 등

18) 竹内康人, 『三菱高島炭鉱への朝鮮人強制連行』, 『在日朝鮮人史研究』, 제33호, 2003; 『原爆と朝鮮人』 pp.66·207; 『地図のないアリアン峠』 p.157; 『死者への手紙』 p.206.

제의 파급효과를 인지하여 하시마의 OUV시기를 1910년 이전으로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인위적 OUV 설정에 대한 비판이 등재 이전부터 ICOMOS 등으로부터 있어왔다.¹⁹⁾

가장 첨예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하시마탄광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보존’ 대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하시마탄광에 대한 시설물 조사 및 보강 조사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여러 문제가 잔존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조사단은 “옛 사진 수집과 구조물 자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숙소 건물 등에 쇠락과 파손 등이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영구 보존을 위한 방법이 기술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²⁰⁾

한편 일본 정부는 - OUV 관점에서 크게 4가지 관점을 중시하여 보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OUV 기여요소로서 메이지 시대 해안 호안, 생산시설 유구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복원한다. 둘째 OUV 요소 외에 국가 사적의 내재적 가치를 보여주는 여타 요소(콘크리트 생산 및 거주시설 유구 등)를 수리해 전함 형태의 그 독특한 실루엣을 유지하고 석탄산업의 발달과 쇠퇴를 제시해 보여주며 또한 공동체 현실에 대한 증거를 보존한다. 셋째 포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며, 여러 요소의 쇠락 상태, 적용 가능한 보존기술의 활용 가능 여부 혹은 그 부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의 정도, 여타 구성요소와 방문자 안전의 영향, 소요예산 등을 일정범위의 관점에서 우선화하며, 단계별 복원과 보존을 시작한다. 넷째 하시마섬의 일부 철근강화 콘크리트 유구는 이미 진행 중인 쇠락과 파손으로 인해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 구조물의 밀도가 장기적으로 점차 낮

19) 강동진, 위의 글 등.

20) 보고서에서는 하시마섬의 복원을 10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마감시한인 2027년은 복원 대책의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지고 있으나, 인근 바다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전함 모양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관리한다.” 결국 이러한 보존 이행 조치는 근본적인 OUV 해석 문제와는 비껴간 ‘건조물’의 물리적 보존처리에 국한된 것이다.²¹⁾

(2) 6항: 각 유산 요소의 수용 가능한 방문객 관리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²²⁾

각 유산의 방문객 수용은 유산의 보호에는 위험 요소이지만, 유산의 가치를 발현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메이지유산의 경우 등재 과정에서 유산구역이 지정되고, 시설물이 설치되어 유산에 대한 안전한 관람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유산의 경우 공업시설물로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세계유산 위원회는 ‘방문자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개별 유산 요소의 방문자 관리 전략’은 “개별 유산 요소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유산 요소들 간의 전체적인 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다만 나가사키 구역 내 운영 중인 유산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야적장의 제3 드라이도크와 자이언트 캔틸레버 트레인, 옛 목형장, 센쇼카쿠 영빈관 등은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현행 방문

21) 유산의 물리적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된다. 즉 방문자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설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일기상황 등으로 입도가 제한되는 상황 변수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시마는 매년 기상 조건으로 4~5개월간 입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거나 유산이 붕괴되기도 했다. 2018년 가을 태풍으로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상륙이 금지되었으며, 2019년에도 태풍으로 7월 말부터 상륙이 금지되었다가 2020년 2월 말에야 접근이 재개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예상 가능한 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하시마의 유적들이 훼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원작업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22) 2019 SOC, pp.21~30.

자 관리 전략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체로 방문자 관리 전략은 방문자 수, 기타 이용에 관한 각종 지표를 요소로 한 양적조사와 방문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질적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자의 편의 확대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전략은 2016~2018년 3년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본격 수립, 이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보고서에는 실제 방문자 관리전략의 이행 결과를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방문자 관리전략 조치는 실제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²³⁾

(3) 7, 8, 9항: 해석 관련²⁴⁾

7, 8, 9항은 각각의 유산에서 해설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예정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OUV의 해석 문제 해결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각각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포함한 추가적인 개선책을 주목하고(7항), 정보센터에 대한 갱신된 내용 제출(8항), OUV시기 및 모든 시기에 대한 전체 역사 해석 작업 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9항)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사실상 7, 8항과 9항은 이질적인 내용이지만, 한데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OUV문제를 다른 지엽적인 문제와 혼동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산업유산센터에서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²⁵⁾

23) 다카시마, 하시마섬의 탄광에 대해서는 다카시마석탄자료관을 통해 방문자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2020년 2월까지 어떠한 변경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문자 관리 전략이 제출되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실제 이행되지도 않는다면 보고서의 전체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4) 2019 SOC, pp.31~41.

25) 실제 산업유산 정보센터에는 ‘하시마탄광에는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등의 증언이

한편 일본 정부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보완책으로 관련 당사자[내각관방, 일본메이지산업유산 세계유산협의회(전 큐슈-야마구치 근대산업유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산업유산국민회의(이하 NCIH)] 및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 해석감사를 진행했으며, 후속조치로 각 구역에 대한 해석 연구와 산업유산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모든 유산 요소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 접근이 가능’한 산업유산센터는 2019년도 회기년도 중 설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31일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함도에서의 ‘조선인 징용공’은 허위”라는 증언 등이 주민들의 증언이라는 명목으로 [존 3 자료실]에 전시되었다.²⁶⁾

(4) 10항: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관한 사항²⁷⁾

세계유산위원회는 10항에 앞서 9항에서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그 연장선에서 ‘관련자간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하였다. 이는 사실상 전체 역사에 대해 이견이 있는 주변국과의 대화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조직, 소유자, 관리자, 지역사회 관련자 등과 대화하여 ‘관련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조직은 ①산업유산전문가위원회(전문가 집단), ②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유적군 보호관리국가위원회(정부 부처 및 지자

소개되는 등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대폭 전시되었다. 이는 강제동원에 반대되는 내용을 ‘전체 역사’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2019년 SOC보고서에는 7, 8, 9항이 하나로 묶였는데, 이는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위한 사전적 조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26) 2020년 3월 31일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COVID-19를 이유로 장기간 휴관하기도 했으며, 전시실 관람이나 촬영에도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27) 2019 SOC, pp.42~44.

체 대표자), ③지역보존위원회(정부 관계부처 및 지역정부, 지역 관계 단체 및 주민대표 등) 등으로 한정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일본 국내로 한정시켜 논의를 협의화하고, 의제를 희석화하였다. 특히 산업유산 국민회의가 메이지유산에 대한 해석감과 산업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²⁸⁾

3. 보고서에서 나타는 주요 문제점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39 COM 8B.14) 취지를 환기하여 ①하시마섬 보존전략, ②방문자 관리전략, ③산업유산센터에서 이뤄지는 해석 내용, ④OUV시기 및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 과정에서 국제적 모범사례 고려, ⑤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출한 2019년 SOC보고서는 ①하시마섬 보존전략, ②방문자 관리전략에 대해서는 사안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행 계획이 비구체적이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④OUV해석, ⑤관련 당사자 간 대화 부분은 결정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답하고 있다.

2019년 SOC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하시마섬 보존전략 및 방문자 관리 전략에 집중되어 있으나, 유적지에 대한 접근 제한(기상변화 문제, 사유지 접근, 산업시설로 가동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금지되는 유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28) 산업유산 국민회의는 등재 과정은 물론 등재 이후 해설전략 수립, 산업유산센터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간여하고 있다. 산업유산국민회의와 산업유산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둘째, 각 유산의 해석에 대해서 기존 보고서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OUV해석의 연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셋째, 결정적으로 강제동원의 역사를 비롯한 전체 역사(full history)의 해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혹은 ‘광범위한 대화’의 대상을 일본 국내에 국한시켜 ‘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39 COM 8B.14)’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39차 권고에서 정의된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동원된 한국인(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은 2018년 SOC에서 “일본의 산업을 지원했던 다수의 한반도 출신자(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who supported Japanese industries)”로 왜곡되었으며, 2019년 보고서에서 아예 누락되었다.

넷째, ‘모든 유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대안으로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제시되었으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우려대로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 누락과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증언 전시 등으로 나타났다.

IV. ‘메이지유산’ 현장의 현실²⁹⁾

메이지유산 보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유산에 대한 해설전략, 개별 유산에 대한 해설 및 보존전략, 그리고 방문객 수용 대응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는 하기, 나가사키, 미이케, 야하타 권역의 대표 유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³⁰⁾

29) 필자는 SOC보고서상의 이행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2월과 2020년 2월, 메이지산업혁명유산 현장을 실지 조사했다. 이 장에서는 보고서 상의 해설전략이 실제 현장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30) 본 장에서 다루는 지역 외에 가고시마, 시즈오카, 후쿠오카의 여타 지역 등이 포함 되어 있으나, 논의의 집중을 위해 쟁점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1) 야마구치현 하기(萩)시

하기 권역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ii, iii, iv으로 정의되었다.³¹⁾ 구체적으로는 “ii :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서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기술의 이전을 피하고, 일본의 원자재, 경제적 요구, 그리고 사회적 전통의 구체적인 맥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채택한 과정을 증명하는 일련의 유산; iii :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산업문화’가 뚜렷하게 발달; iv : 철과 철강, 조선, 탄광의 조화는 비서방 국가 중 일본이 선구적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증거”이다.

당초 하기시 지역의 유산 해석과 관련해서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으로 상징되는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의 OUV 타당성 문제와, 쇼카손주쿠와 여타 하기 지역 내 유산과의 연계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2019년 SOC는 2019년 2~8월 내각관방 및 해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석감사단을 통해 감사 및 보완조치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도시 경관을 고려한 완충구역 설정 및 관리 계획 수립이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관을 보존 하면서, 상업과 산업을 진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개정 계획은 세계유산의 보전에는 부합되지 않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하기의 문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OUV 타당성 문제라 할 수 있다. 하기는 일본 메이지유신을 상징하는 곳으로 일본 근대사에서 부각되는 곳이지만, 제국주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역사에서 주변국과의 인식 차이가 큰 곳이다. 하기가 배타적 국수주의/공격적 제국주의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중요 유산(쇼카 손주쿠 등)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요시다 쇼인-쇼슈 5결과 기타 ‘메이지지사’에 대한 설명만이 강조되고 있어 유네스코 유산의 구

31) 2015 Nomination file 1484, p.639.

성요소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메이지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2015년 이전까지도 일본역사 서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산업유산을 부각시키는 맥락 속에서 유산들을 특정 시기(메이지시기)와 연관시켰고, 이를 다시 메이지유신과 연동시키면서 중요시된 곳이 하기이다.³²⁾ 즉 하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산업혁명’이라는 OUV를 통해 재해석(재맥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나가사키는 메이지 산업혁명의 제철과 조선을 대표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등재 당시 일본 측은 “1890년부터 나가사키 조선소가 증설되며 서양 기술의 실질적인 이전이 수반, 일본의 개조와 개량이 이어졌으며,(OUV 2항), 지역 내 4개 유적은 기술 앙상블의 증거라고 정의되었다.”³³⁾

하시마탄광을 비롯하여 미즈비시조선소 등 나가사키 지역의 유산군은 일본 근대화의 명암을 이중적으로 상징하는 곳이다. 한편으로 일부 조선, 탄광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어서 문화유산으로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기업의 책임으로 전과되었다.³⁴⁾

사실상 나가사키의 8개 유산들은 크게 조선시설과 탄광시설로 양분된다. 상징시설인 나가사키조선소는 요소(크레인, 도크, 영빈관, 목형장)에 그치고 있고, 두 곳의 탄광은 폐허 상태이다. 이 중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나가사키조선소는 대표적인 강제동원 사이트들로 ‘전체역사 수립’의 주요 대상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며, 일본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설전

32) 메이지유산 등재 후 일본 교과서에서 메이지산업혁명이 등장하고 관련 단원이 설정되고 있다.

33) 2015 Nomination file 1484, p.1532

34) 2019 SOC, appendix, p.264.

락을 밝혀야 하는 곳들이다. 그러나 2019년 SOC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서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나가사키라는 도시의 특성도 OUV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나가사키는 원폭 피해 도시로 히로시마(広島)와 마찬가지로 전후 ‘반전/반핵운동’이 활발한 곳이다. 특히 나가사키원폭자료관은 원폭의 배경과 피해, 종전 후의 반핵운동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는 원폭 투하까지의 경과(태평양 전쟁기), 피폭 현장, 피폭에 대한 과학적 분석, 피폭으로 인한 피해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후반에는 나가사키 강제동원과 한국인 등의 피폭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가사키 강제동원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상식적 이해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나가사키평화공원에는 조선인 희생자비도 세워져 있는데, 이렇듯 지역에서 ‘공인’된 역사 인식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³⁵⁾

다카시마탄광은 하시마탄광 개발의 계기가 된 곳으로 해저 탄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접근이 제한적인 하시마에 비해 교통이 용이하여 하시마탄광의 관람 대안으로 지적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다카시마탄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시했으며,³⁶⁾ 다카시마 석탄박물관을 핵심 전시(해설) 시설로 지정된 것이다. 2019년 SOC보고서에는 “일본과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의 다른 탄광에 대한 설명과 전시물을 보강할 계획”이며, “다카시마 홋케이(北溪)갱부터 나카노시마(中の島) 탄광,

35) 나가사키원폭자료관에는 ‘나가사키의 외국인피폭자’에서 “나가사키에서는 많은 외국인도 피폭되었다. 피폭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조선인이었다. 조선반도에서 강제 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 노동자로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쓰고 있다. 또한 외국인피폭자 중 조선인은 “13,000~14,000명, 12,000~13,000명, 22,198명”으로 추산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피폭자 이기상의 증언을 전시하는 등 나가사키로의 한국인 강제동원과 피폭을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전시하고 있다.

36) 2019 SOC, appendix, p.264.

하시마 탄광 같은 유산의 역사적 특징들을 연결시켜, 탄광 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시마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지만, 섬이라는 특성상 다카시마탄광에 대한 관람객의 접근과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설 보완, 편의 증진 공간으로 다카시마 석탄박물관이 강조되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 2019 SOC 보고서에서 제시한 섬 내의 관광코스, 편의시설, 다카시마석탄박물관의 활용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다카시마 석탄박물관에는 1950년대 이후 탄광 모습, 마을 사람들의 문화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군함도 코너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하시마 탄광은 “석탄 산업 추기 및 발전기 서양기술의 도입과 해양석탄개발의 사례”(OUV 2항 및 4항)로 정의되며³⁷⁾ 메이지산업유산의 대표 유산이 되었다.

하시마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유산이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지만, 실제 세계유산의 OUV지점은 볼 수 없고, 접근의 어려움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2019 SOC보고서 상의 방문객 관리 전략도 관광 동선의 설정과 울타리 설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하시마 입장 제한 조례(Ordinance on Limiting access to Hashima)”에 따라 방문객 시설 외 구역에 입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수립했다고 밝혔다.³⁸⁾ 이를 통해 섬에 상륙하는 방문객의 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것이 대응의 요지이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하시마 탄광과 세계 유산에서의 가치, 기타 측면 이면의 역사를 완벽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

37) 2015 Nomination file 1484, p.1690.

38) 이는 “관광객을 섬으로 데려오는 유람선의 승객 수를 선박 당 20~22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각 회사가 하루 2차례 운영을 하며, 방문객은 섬에 1시간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카시마 탄광박물관, 나가사키시 군칸지마(군함도) 박물관, 구 미쓰비시 2번 도크, 기타 나카노시마 탄광, 이케시마 탄광 등이 제시되었으며, 도쿄에 위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도 그 연장선상에서 설치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 하시마섬은 “하시마 입장 제한 조례(Ordinance on Limiting access to Hashima)로 관광객을 섬으로 데려오는 유람선 승객 수를 선박 당 20~22명, 각 회사가 하루 2차례 운영”한다고 규정했으나, 실제 선박 당 승객은 몇 배로 이를 초과한다.(1백 명 육박) 또한 군함도는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매년 태풍으로 접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관람의 제한뿐 아니라, 유산의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SOC 상에서 ‘적절한 통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환경,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가사키 지역에 있는 상당수 유산들은 일반 관람이 불가능하다. 글로버 저택, 제3도크, 자이언트 캔틸레버 크레인, 미츠비시조선소 옛 목형장, 센쇼 가쿠 등이 현재 가동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람이 되고 있지 않다. 2019년 SOC보고서에는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문객 관리 전략을 기술하지 않는다.

(3) 후쿠오카현 미이케(三池) 지역

미이케 지역에는 미이케탄광, 미이케항, 미야노하라갱, 만다갱, 전용철도유적 등의 유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한 육상, 해상 운송 인프라를 상징”하는 유적으로 2~4항의 OUV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³⁹⁾

39) 2015 Nomination file 1484, p.2358.

나가사키 지역에 비해 주목되고 있지 않지만, 미이케 지역은 후쿠오카 지역을 대표하는 강제동원 현장들이 산재한 곳이다. 일본의 초기 탄광지대라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나, 잔존하는 탄광시설과 항구시설들은 세계유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역사적 가치와 원형적 가치가 낮다.⁴⁰⁾ 비교적 원형이 남아 있는 만다깡의 경우 대표적인 강제동원 관련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해설이 분명히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미이케 지역을 대표하는 만다깡 스테이션(전시관)에는 전쟁기 ‘징용’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 있으나, 강제동원과 관련한 직접적 해설이 없다. 한편 미이케항구의 경우 다소 떨어진 곳에 전망대를 두어 관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이케항구에서는 관련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

미이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석탄산업박물관인 오무타 석탄산업 박물관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중국과 한반도 출신자, 그 위에 연합군 포로에 의한 노동도 행해졌습니다. 전쟁 종전 시의 1945년 8월에는 미이케탄광 전체에서 조선인 2,294명, 중국인 2,348명, 포로 1,409명에 달했습니다.”라고 전시 해설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만다깡 스테이션 등 전시시설, 유산 현장에서 해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후쿠오카현 야하타(八幡) 지역

야하타 지역은 야하타제철소, 본사무소, 수선공장, 옛 단야공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 지역이다. 특히 야하타 제철소는 “서양기술에 의해 설계된 최초의 통합제철소. 일본 근대 철과 철강역사에서 주요국면의 시작”을 알리

40) 주요 유산 요소인 폐철도도 원형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폐철로와 탄광 주변은 대부분 시가지로 개발되어 있어 산업유산으로서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

는 유산으로 정의되었다.(OUV 2항) 야하타지역 유산은 “산업화에서 국가와 민간기업의 독특한 혼합발전의 증거”(OUV 3항)이자 “철, 제강기술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 새로운 기술 도입의 단계를 보여준다”(OUV 4항)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⁴¹⁾

야하타 지역 산업시설은 일본 철강업사를 주도한 시설이며, 기타큐슈 지역 철강역사의 산물이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철강의 80~90%를 제국 철강소가 담당했다. 스스로 제철공장의 출발은 대포 제작에 두고 있다고 설명(이곳도 군사 목적으로 시작된 곳)할 정도로 군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OUV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산군은 사무소와 수선공장(2) 등 3개소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수선공장은 현재까지 운영), 직접 관람은 불가능하며, 가동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건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망공간에 컨테이너박스를 개량한 사무실을 두고 4인 정도의 봉사자 등이 있다. 최근 약간의 안내판 보강 등이 이뤄졌지만, 유산의 경관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다.⁴²⁾

41) 2015 Nomination file 1484, p.2541. 각 유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야하타제철소 본사 사무소 : 서양식 건축 설계의 채택을 증명. 기술교류의 성격 반영; 수선공장 : 건물 디자인, 강철 골조 등 독일기술의 이전을 보여줌; 단야공장 : 주조공장의 기능, 재료시험을 반영. 제철소의 지속적인 확장. 기술이전을 상징; 온가강 펌프장 : 제철소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용수 수요의 증가를 나타냄. 설계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면서도 일본적인 조건에 맞게 변형.

42) 현장에서의 해설사 설명은 잘 교육된 내용으로 이뤄졌다. 10분 정도로 구성된 설명은 왜 세계유산이 되었는가와 왜 야하타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관영에서 민영으로의 변화, 기타큐슈의 산업적 특징 등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청일전쟁 배상금을 자금으로 야하타제철소가 건설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 팽창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한편,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사무소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곧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이지산업혁명의 주요 유산 현장에서 확인되는 일본정부의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이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은 아시아 지역의 산업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나, 근현대사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식민지기와 전쟁기 피해 문제를 세계유산 가치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보편적 이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산 각각의 경관미, 유산들 간의 연계적 해설,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부여의 논리성 등 현장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둘째, 특히 하기 지역의 유산은 일본근대사에서 의미부여하는 것이지만, 세계역사, 동아시아역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재한 곳이다. 하기가 배타적 국수주의/공격적 제국주의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중요 유산(쇼카 손주쿠 등)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요시다 쇼인-조슈 5인과의 기타 ‘메이지지사’에 대한 설명만이 강조되고 있어 유네스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거의 느낄 수 없다.

셋째, 전체적으로 각 유산의 해설은 현장에서의 직접 해설보다는 인근 박물관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간접 해설 시에 현장감을 살리고, 유산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많은 현장에서 세계유산의 가치와 일본 국내에서의 중요성 부분이 혼재되거나 충돌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넷째, 현장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박물관, 만다깁 스테이션, 야하타제철소 구 본사 전망소, 미이케항 전망대 등으로 유산의 관람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지점이다. 유산을 직접 관람할 수 없는 것은 유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시마박물관의 경우 SOC보고서에서는 군함도와 다카시마 유산군에 대한 전반적 편익 증진과 해설 보강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태이다.

다섯째, 가동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는 유산의 보존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야하타제철소와 나가사키조선소의 도크, 크레인 등은 가동 중이거나 관람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들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관람의 제약뿐 아니라 원형 훼손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여섯째,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안내판’이 통일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각 유산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 특히 일본어 설명과 영어 설명에 차이가 매우 크다. 영어 설명에서는 한 문장 수준의 ‘유산 정의’ 정도가 기술되어 있으며, 어느 곳에 가도 같은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다. 동일한 내용이 유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세계유산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⁴³⁾

일곱째, 각 유산 중에서도 나가사키와 후쿠오카는 대표적인 강제동원 현장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강제동원 역사는 해당 지역 박물관 등에 ‘자연스럽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나가사키원폭자료관/오무타석탄산업관) 현재 해당 지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역사서술이 세계유산 해석에서 굳이 배제되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COMOS 유산해석 현장에서나, 일본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유산의 지역적 차원의 가치를 세계유산 가치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43) 영문해설은 다음과 같다. “One of series of properties that form a World Heritage Site that reflects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Japan from the 1850s to 1910, founded primarily 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This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was achieved in just a little over 50 years without colonization, and on Japan’s own terms.”

여덟째, 강제동원 관련 유산들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유산 해석과정에서 제시되어, 당시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와타리탄광, 미이케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또한 강제동원으로 비롯된 나가사키 피폭문제 등도 이와 무관한 이슈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며 -전망 및 제언-

2019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보존보고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서 권고한 8개항에 대한 이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방문자 관리에 대한 전략과 하시마탄광에 대한 보존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4, 5, 6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해설 전략과 관계자와의 협의 부분은 내용적으로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① 보고서 제출 당시 미개관 상태였던 산업유산센터의 전시내용 등 센터의 전반적 해석 내용(8항 요청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OUV 해당 시기 및 그 밖의 시기 모두에 대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전략 권고했음에도 강제동원의 역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10항 요청 내용)가 일본 국내에서만 진행된 채 전체 역사에 관련 있는 한국 및 주변국과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0년 9월 세계유산센터는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및 해설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11월말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도 ‘전체 역사’의 해설은 다뤄지지 않았으

며, 2021년 6월 실사에서도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유네스코와 ICOMOS 공동조사단은 “강제노역한 이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해석 조치가 불충분”하며,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당사국이 등재 당시 한 약속이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들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세계유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2년 12월 1일까지 다시 유산보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2018년 이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서 거듭 요구되고 있는 것은 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급냉각한 한일관계 속에서 대화는 실종됐고, 갈등은 고조되었다.

메이지유산을 둘러싼 논쟁은 유산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역사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은 산업화와 근국주의화를 함께 추진하며, 제국의 대열에 섰다. 복잡다단한 일본의 근대사에 제국주의라는 어두운 역사에 드리워져 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국가였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규슈 곳곳에 있는 초기 산업시설들은 남다른 경관으로써 이를 대변하고 있다. 논쟁은 오히려 유산의 본래 가치조차 들여다보지 않게 하고 있다.

한편 논쟁 속에서 역사 해설의 무대는 ‘산업유산 정보센터’로 전이되었다. 또한 ‘강제동원 사례의 반영’이 ‘전체 역사 해설’의 지표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세계유산의 현장성은 외면되고, 다양한 역사의 해설이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지역 안에 숨 쉬고 있는 역사는 외면되고 누락되고 있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의 역사가 ‘세계유산의 역사’와 호흡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중 가장 침예한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 메이

지산업혁명유산이지만, 향후 다른 유산 등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거나(사도광산 등) 기존 유산에 대한 해설 변경(히로시마평화자료관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각 건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을 이해하고, 그 논리를 분석해가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일본 정부는 3번째 유산보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여 남아 있는 대화의 시간을 살려 이제라도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수많은 역사를 함께할 한일관계의 ‘정상화’이며, 세계유산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1년 11월 20일

논문 심사일 : 2021년 12월 3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12월 10일

참고문헌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証言』, 明石書店, 1990
林えいだい, 『死者への手紙』, 明石書店, 1992.

竹内康人, 「三菱高島炭鉱への朝鮮人強制連行」, 『在日朝鮮人史研究』 33, 2003.

木村至聖,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4.

강동진,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 『국토계획』 50권 2호,
2015.

김민철 외,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생각정원, 201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들지원위원회,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2012.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 한일 시민이 함께 만든 세계유산 가이드북」, 2017.

안연희,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세계유산의 의미」, 『광장』 219, 2018.

윤지현, 『파도가 지키는 감옥섬』, 선인, 2013

이영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일고찰」, 『아세아연구』 통권 180호, 2020.

한정선, 「군함도, 산업유산과 지옥관광 사이에서」,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황선익,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일본공간』 19, 2016.

CABINET SECRETARIAT JAPAN,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2017.

CABINET SECRETARIAT JAPAN,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2019·2020.

Abstract

Issues and prospects on the issue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2017~2021)

Sun-ik, Hwang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15, put forward its value as a World Heritage Site cal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Asia, but caused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forced labor of workers during the Pacific War. In addition to excellent universal values, the World Heritage Commission has asked them to come up with an interpretation strategy to understand the entire history of the heritage and report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Japan submitted SOC reports((State of Conservation Report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in 2017 and 2019 under the name of the cabinet office,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specific issues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the main contents of the SOC report and the field situation were analyzed. In 2019, the SOC only focused on visitor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heritage, but did not actually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history. In addition, it did not fulfill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hich specified dialogue

with neighboring countries, but replaced them with expert committees and interregional councils in Japan.

In June 2021, UNESCO and the ICOMOS joint investigation team concluded that “interpretation measures to help understand forced workers are insufficient,” and th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has not yet fully fulfilled the promises made by the parties or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ventuall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xpressed “strong regret” and decided to submit a heritage preservation report again by December 1, 2022. Communication and solu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pursues universal value and pluralism amid constant debate.

Key words

World Heritage Committee, Report on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ashima, Hagi, Nagasaki